

# 오키나와에서 보내는 열 두번째 편지

『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』  
— 고린도전서 3:6

살롬! 오키나와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간 시간이 어느덧 **1년 10개월**이 되었습니다. 동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,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기도의 매일이 되었고,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.

때로는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히며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, 저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이 땅을 덮고 있음을 봅니다. '**함께 하는 은혜**'라는 제목으로 이곳 오키나와 땅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소식들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



# 함께 하는 전도

1년 반 전,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**나오키 할머니(82세)**를 만났습니다. "내가 걸을 수 없을 때까지 매일 이곳에 나와 전도하겠다"고 말씀하실 만큼 복음 전도 열정이 크신 분으로, 이제는 저희 집에 자주 오가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, 매일 저녁 8시면 아내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**영적인 동역자**가 되었습니다.

## 히루니와의 1년 6개월

할머니를 통해 만난 스리랑카 친구 히루니는 불교 배경을 가진 친구였습니다. 저희는 할머니와 함께 **1년 6개월**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를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.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꾸준히 복음을 나누고 교회로 초청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.

## 눈물의 고백

예수님을 전할 때면,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신지 제 마음에도 그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, 히루니가 "**나, 이제 예수님 믿어**"라고 고백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,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.

앞으로도 히루니가 믿음 안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, 그리고 나오키 할머니의 곁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.

# 함께 하는 사역



## YWAM 사역

오키나와 YWAM에서는 제자훈련, 중보기도학교, 성경연구학교 등 다양한 학교 사역과 도시락 사역, 지역 교회 협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,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.

## 함께함의 은혜

국적도 문화도 다르지만, 오해를 대화로 풀어가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법을 배웁니다. 최근 몸이 아팠을 때 삼계탕을 끓여다 주고 함께 기도해 준 동역자들을 통해, '함께'하기에 누리는 위로와 든든함이 선교 현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깊이 느꼈습니다.

#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

오키나와에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인 '**한목자회**'가 있습니다. 35년간 사역하신 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, 그분들이 품은 오키나와를 향한 깊은 사랑에 늘 감동하곤 합니다. 일 년에 서너 번의 공식 모임 외에도,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.

"하나님은 그 길을 피하게 하거나 빨리 극복하게 하시기보다, 때로는 그 길을 직접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. 그렇게 부딪히며 걷다 보면 선교가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지요." – 한 선교사님

## 시련의 시간들

집이 구해지지 않아 막막했던 일들, 갑작스러운 대상포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들,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언어의 벽에 막혀 고민했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.

## 주님의 동행

하지만 돌아해보니, 그때마다 주님은 늘 저와 함께하셨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습니다. 때로는 걷게 하시고, 때로는 나아가게 하시며, "과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?"라는 질문과 "선교는 주님이 하신다"는 진리 앞에 저를 다시 세우셨습니다.

## 매일의 질문

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. "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?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가?" 이 질문은 저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.

# 기도제목

1

## 한국 방문 일정 (8월 20일 ~ 9월 15일)

한국에 머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, 만나야 할 귀한 분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여 주소서.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비전이 심겨지게 하소서.

2

## 오키나와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하여

다카요, 유즈, 아이사, 미우, 하루니, 유리야, 세이카, 나나 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,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.

3

## 오키나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

이곳 오키나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, 성령의 능력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.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과 정기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.

4

## 동역자와 건강을 위하여

저희와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로 동역할 교회들과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고, 무엇보다 사역의 모든 걸음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.

わたしは植え、アポロは水を注いだ。しかし、成長させたのは神です。ー 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一 3章6節